

포장기술 억제정책은 후진국형 산업구조

포장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절실

한규범/한국PET용기협회의 회장

“한동안 먼 나라에 갔다 온 듯한 기분입니다. PET병은 사용상의 편리성, 경제성 및 디자인의 다양성 등 특성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되어 전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재활용율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리터이하 생수 PET병 사용을 금지한다는 발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지요. 다행히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 라고 잘라 말하는 한규범 회장은 그간 마음고생과 활동의 분주함이 역력했다. 지금은 PET용기협회의 구심점 마련을 위해 회원간의 잦은 교류와 사무실 마련에 여념이 없다.

협의회 설립배경은 “유리병만이 대다수의 포장수단이었던 시대는 지나고 많은 포장물들이 급속히 개발되어 식음료 문화가 크나 큰 발전을 이루면서 페트병이라는 획기적인 대발명품이 십수년전 개발되어 모든 지구인에게 그 편리함을 안겨주어 폭발적인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리병만이 있었을 때는 그다지 수요가 많이 늘지 못하였으나 페트병을 사용하고 부터는 여러가지 포장물들로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 이제 그 뒤처리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대화하는 구심점이 있어야겠다는 필요에 의해 이삼년 전부터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주선하에 한국페트용기협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라고 밝혔다.

“플라스틱과 함께 한 35년의 생활이 이 분야 다방면의 지식을 갖게 했다”는 한규범 회장은 페트병과도 14년 동안을 같이 지냈다. 많이 모자라는 자신이 왜 협의회를 맡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밝히며 어차피 맡게된 협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하게 표명했다.

“수년전부터 페 PET용기는 처리가 안된다는 쓰레기하치장의 아우성으로 페 PET병은 리사이클링이 전혀 안되는 물건으로만 오해받던 것을 우리 협의회가 이름으로 각계에 자료를 보내 ‘이것은 대단히 유용한 재원이며 또 재생이 잘되는 품목’이라는 것을 이해시켜 왔는데 실제로 이제 모아주기만 하면 스스로 선별까지 하여 중국에 수출하며 물건이 없어 아우성을 치는 것만 보아도 활용가치가 높은 물건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감용기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이점에 잘 대처가 안되는 것 같아 우리 협의회에서 중형 감용기 2대를 미국에서 구입하여 강남구청과 양천구청에



◀ 한국PET용기협회 한 규범 회장

각 1대씩 증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이라면 먹는 물 1리터이하 병을 PET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사이클링 요율을 상향조정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한가지 들 수 있습니다.” 현재 한일프라콘(주) 대표로 있는 한규범 회장은 이제 이 협의회가 친복의 모습에서 벗어나 내용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추진해야 될 단계라 밝히며 마음 같아서는 펄펄 날고 싶지만 언제부턴가 ‘건강’에 대해 신경이 간다고 겸연스레 웃었다.

지금과 같은 원료값의 상승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PET원료값의 상승은 품귀현상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나라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원료를 개발하는 단계 -PX(파라자일렌)를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국내에서 개발되었으면-에 있기 때문에 수입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보다 대외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무슨 사건이 생기면 페트제품의 품귀라 해 원료값이 상승하는 것이지요.”

향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는 회원사인 (주)삼양사에서 10월부터 페 페트병 재생공장이 가동되어 페 페트병을 쿠션재, 비음료병, 포장재 등의 원료로 쓰이는 순수 PET칩을 생산함으로써 환경문제의 해결과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분들이 정성들여 페 페트병을 모아 보내 주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끝으로 현 산업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도 사용하니까 우리 나라도 해야된다는 고정관념은 탈피해야 됩니다. 각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포장재와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해야 됩니다. 각 분야의 포장기술을 억제하는 정책은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길입니다.”

(변준섭 기자)